

日, 10억엔 출연 확정...강제동원 부정 우려

위안부 재단 출연 공식 결정

정부 후속 대응 속 힘로 예고

소녀상 이전 조건 내걸지 촉박

일본 정부가 24일 한일 군위안부 합의(작년 12월 28일)에 포함된 10억엔(112억 원) 출연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한일 합의에 따라 우리측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고, 이에 일본 측이 10억엔 출연을 결정함으로써 일본 측이 취할 이행조치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의 10억엔 출연이 완료되면 적어도 한일 정부 사이에서는 '외교적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1991년 고(故) 김학

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5년 만이다.

한일관계 소식통들은 이르먼 이달 중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재단에 입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억엔이 출연되면 화해·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명예 회복 및 상처 치유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단 사업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이 앞으로도 힘로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비난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종 해결 조는 불가역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망언이 중단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책임인정과 사죄 반성 표명도 최종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준수해야 할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10억 엔 출연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사실상 부인한 자국 외교관 발언을 영문 홈페이지에 실은 사실은 예상하지 않아 보인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탈색시키려는 아베 정권의 국내외적 노력이 앞으로 한층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일간에는 앞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 이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본 측은 자신들의 이행책임인 10억엔을 출연했으니 소녀상 이전에 한국이 책임을 다하

라는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10억 엔 출연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이 세운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이래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는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국내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기에 한국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과 일본 정부의 요구 사이에서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왕이, 윤병세 장관에 "사드 결연 반대"

도쿄 회담서 전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왕이 부장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윤 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늘은 한중 수교 24주년이라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중국 측은 한중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고 윤병세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잘 되도록 중국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방문을 환영하지만 한중 관계는 일련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알다시피 우리는 사드 문제를 거론했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대해서 결연히 반대 의사를 견지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도쿄의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왕이(왼쪽) 부장과 윤병세 장관.

왕이 부장은 "우리는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중 우호 협력 관계에 전면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한중이 협상을 진행해 쌍방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강진...최소 21명 사망 100명 실종

규모 6.2...마을 절반 없어져

새벽 발생 탓 인명피해 많아

이탈리아 강진 발생



이탈리아 중부에서 24일(현지시간) 오전 3시 36분께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과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앙은 중세 문화유적으로 유명한 고도(古都) 페루자에서 남동쪽으로 70km, 수도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노르차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탈리아 방송사 스카이 TG24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최소 21명이며, 실종자가 100명이라고 보도했다.

노르차에서는 1시간 뒤 규모 5.5의 여진



24일(현지시간) 새벽 이탈리아 중부 아마트리체에서 강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이 발생했으며 인근 라치오 주에서도 4.6, 4.3 규모의 여진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첫 지진 이후 지금까지 39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피해가 가장 큰 라치오 주 리에티 현의 아마트리체와 아쿠몰리 지역의 하늘은 먼지가 뒤덮였고, 누출된 가스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인구 2500명의 작은 마을 아마트리체에서는 현재까지 최소 5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세르조 피로치 아마트리체 시장은 관영 라디오인

RAI에 "시내 중심부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도시의 불도 다 꺼져버렸다"며 "응급 요원들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마을의 절반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와 다리가 끊겨 마을이 고립됐다"고 덧붙였다.

날이 밝자 주민들까지 삼과 맨손으로 잔해를 피해지며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고, 여성 1명과 개 한 마리를 구조하기도 했다. 구조대는 장비가 부족하다며 지원을 호소

했고, 현열 캠프인 당국도 리에티 지역의 병원에서 현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지역이다. 나폴리 인근의 베수비오 화산,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라퀼라에서 발생한 규모 6.3 지진으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움브리아 주에는 한국 교민 수십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인의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도 '코리안' 차별

호주 거주민 55% 경험

"위홀러 무제한 입국도 원인"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위홀러)를 포함해 호주에서 생활하는 한국 태생자 2명 중 1명꼴로 지난 1년 동안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호주 내 보고서가 나왔다.

차별 형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차별이 일어난 공간은 거리나 쇼핑할 때가 주를 이뤘다.

이같은 결과는 호주 자선단체 '스캔론 재단'(Scanlon Foundation)의 의뢰를 받아 모나시대학이 호주에 사는 각국 출신자 총 1만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4일 발표한 '호주인들의 오늘'이라는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자 중 한국 태생자는 모두 301명으로, 학생비자 102명, 위홀러 87명, 가족이민 43명, 기술이민(skill) 35명, 귀화(457)비자 소지자(10명) 등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피부색이나 인종적 기원, 종교 등을 이유로 지난 12개월 사이에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이 넘는 5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유럽 각국(11~22%)은 물론 태국(50%)이나 중국(39%), 인도(39%), 말레이시아(37%), 필리핀(30%) 등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위홀러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입국

하는 요인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사이 차별을 경험한 횟수는 1~2차례가 25%로 가장 많았으며, 3~6차례가 20%였다.

차별 형태로는 언어폭력(복수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소속감을 못 느끼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30%, 일터의 부당한 대우가 13%, 신체 공격을 받은 것도 11%를 차지했다.

차별을 경험한 장소(복수 응답)로는 거리 42%로 가장 많았고, 쇼핑할 때(36%),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23%)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일터(20%)와 사교 장소(18%)에서도 차별이 일어났다.

이밖에 '통상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28%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해 남수단(4%), 뉴질랜드(25%)에 이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출신은 65%, 인도 출신은 51%가 신뢰한다고 밝혀 각국 출신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이주자 대부분이 호주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대감과 달리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인 비율은 떨어진다 고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앤드루 마르쿠스 교수는 "이주 1세대에게 삶은 투쟁이고 이들 다수는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따라서 이들에게 2세대와 3세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환 무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시내(062)

북구	동광	264-2012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중남	654-2985
	남광	222-9440
동구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암	222-1896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하하	675-6605
	진월	671-7276
	광천	382-5788
서구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0583
	월곡	941-9174
광산구	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전남(061) · 전북(063)

동부권	고흥군	842-2121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광양시	792-8111
	보성군	852-9646
	순천시	746-8111
	여수시	692-0997
중부권	나주시	335-5501
	강진군	434-6830
	담양군	383-8116
	영암군	471-1717
	장성군	394-0400
	장흥군	863-8822
	화순군	374-4423
서부권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영광군	351-1004
	완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함평군	324-8111
	해남군	537-6767
전북권	군산시	467-2500
	정읍시	531-5544
	순창군	652-1920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

광주공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